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교수 개발 프로그램(2005) (Faculty Development Program)

마취통중의학교실 고 신 옥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연세의대가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위하여 2000년부터 준비한 광혜 새 교육 과정의 임상의학 입문 프로그램이 2004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광혜 새 교육 과정의 임상의학 입문 프로그램이 입문 과정과 organ based 통합강의가 계획되면서 중환자의학 4 시간이 포함되어 책임교수로 일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환자의학 교과 과정이 의과대학에 개설된 곳은 연세의대에 처음이며 유일하다. 중환자의학은 생리적으로 불안정하고 보상 능력이 힘든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이상 소견 발견시 장기 손상을 최소화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로 조기에 장기 기능을 회복시키는 급성 소생의학이다. 현대의학이 극도로 세분화된 현 시점에서 환자에게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중환자의학 강의 시간이 학생들에게 심폐 장기와 장기 부전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후 배정되는 것이 좋았지만 교육과정 2학년 준비 위원회는 중환자의학과 응급의학 각각 4시간씩 8시간을 2학년 2분기 초에 강의 일정을 조정하였다. 2학년 의과대학생에게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고민이 남아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의학교육학과에서는 광혜 새 교육 과정 시작과 의학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우리 대학 교수들의 교육 능력 함양과 지원 목적으로 2005년 교수 개발 워크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원내 이 메일 공지가 있었다. 참가 희망 신청자를 20여명으로 제한하였던 소 그룹 워크숍이었다. 응급의학과 중환자의학 책임교수로서의 책임감과 교수가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듣는 워크숍 제목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대형 강의, 그 영원한 숙제” 시간과 “명 강의 & 프리젠테이션 핵심전략” 시간은 나의 이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켜 주었다. 1983년 전임강사부터 2005년까지 20 여년간 의과대학 교수로 학생강의 때는 즐거나 지루해 하고 산만하고 집중되지 않는 교실 분위기에 당황하고 실망하였다. 그리고 국내, 외 학회를 통하여 수 많은 대형 강의를 할 때마다 아쉬움이 항상 남았었다. 이번 교수 개발 워크숍은 강의 후에 참석자를 그룹으로 나누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토의하고 종합 정리 20분 동안은 강사는 각 소 그룹에서 도출된 결론 등을 종합, 정리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주제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강의 도중이나 후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싫어하는 강의,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의, 학습효과를 잘 얻기 위한 강의 방법 또는 강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나 강의 대상은 집단이 아니고 개인이며 학생이나 듣는 사람 수준에 맞게 강의하여야 하며 시작과 끝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형 강의는 준비, 실행, 평가에 있어 한 사람이 연출하는 그리고 늘 변화하는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공연 예술 작품과 같고, 더 좋은 강의를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은 훌륭한 교수들의 영원한 과제이다 라는 결론은 20 여년간 대형강의를 하면서도 강의법에 대하여 한번도 교육받은 적이 없었던 임상 교수로서 무척이나 감동적이고 본인 스스로 격려 받은 내용이었다.

그리고 워크샵을 통하여 표준화 환자 프로그램과 Skill lab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 SP)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임상 기술들을 배우고 평가 받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진짜 환자의 습성을 습득하도록 세심하게 훈련된 사람으로 정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술기 능력을 교육하고 평가하기 위한 공간, Skill lab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학교육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일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좋은 진로 선택을 하고 그 영역에서 크고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진로 지도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의대생들의 진로선택 지도” 시간 역시 기억에 남는다. 매년 후반기에 연례행사처럼 전공 과목을 정하느라 갈등하는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과 인턴들을 보면서 학생들에

게 자신들의 미래 진로를 선택해 나가는데 필요한 상세한 정보들을 본과 1, 2학년 때부터 조기에 제공하고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더욱 우수한 전문가로 일찍부터 커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로지도 연구 목적이라는 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의사 주도 의료에서 1970년부터 환자 권리 주장이 의료 결정에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여 현대 의료가 변환하듯이 의학교육도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인 것 같다. 그리고 학생뿐 아니라 병원 임상 현장에서 전공의 교육이 강조 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임상 의사로서의 의학교육의 변화된 패러다임을 접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은 졸업 후 수련 교육의 질적 수준으로 이어지며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으로 이어지는 고리로 연결되므로 의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진료와 연구만으로도 벽찬 임상교수들의 바쁜 일정을 교육에 할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학생 교육에 대한 교수들의 열정이 합해져야 의과 대학의 잠재력을 일으키고 임상 의사로서의 기초학자로서의 자질을 끌어내어 연세 의료원의 큰 자산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오늘도 교수 개발 워크샵에서 토의하였던 내용들을 되뇌이면서 전공의들과 하루를 시작한다.